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 개발 및 신뢰도, 타당도 연구*

신 현 균 김 희 경* 임 지 영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통일부 하나원 호서대학교 산업심리학과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태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자기보고식 검사로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Brief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Refugees; BPSI-NKR)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연구 I에서는 기존 문헌 고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제 영역을 측정할 수 있도록 9개의 하위 척도들(기본 척도: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 예민, 분노, 정신증; 보충 척도: 가족문제, 음주문제)을 구성하고 103개의 예비 문항을 작성하였다. 연구 II에서는 하나원 교육생 298명을 대상으로 예비 문항에 대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준거 척도로 SCL-90-R과의 상관분석과 문항-총점 간 상관을 통해 내용상 일관적이고 타당도 있는 84 문항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III에서는 최종 척도를 하나원 교육생 남성 127명과 여성 225명에게 실시하여 기본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보충 척도의 타당도를 분석하였으며, 연구 IV에서는 남성 77명과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통해 본 검사의 시간적 안정성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신증과 음주문제를 제외한 척도들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70 이상을 보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족문제 척도는 가족응집력 척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을, 음주문제 척도는 기존 음주문제 척도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여 준거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검사-재검사 점수 간 상관은 남성의 경우 정신증 척도를 제외하고 모든 척도에서 .60 이상이었고, 여성의 경우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분노 척도의 시간적 안정성이 양호하였지만 대인 예민, 정신증, 가족문제 및 음주문제는 .50대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끝으로 본 검사 개발의 의의 및 검사의 특징, 활용 범위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 북한이탈주민, 심리검사,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 신뢰도, 타당도

* 본 연구는 2009년 통일부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김희경 / 통일부 하나원 / 456-600 경기도 안성시 안성우체국 사서함 18호
Tel : 031-670-9441 / Fax : 031-670-9353 / E-mail : hkkim@unikorea.go.kr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정신건강에 대한 연구들도 상당히 축적되어 왔다. 이들은 북한 탈출, 제 3국 체류, 그리고 남한 입국 과정에서 여러 난관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먼저 탈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은 입국 당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도 다수이며, 긴장된 삶 속에서 잠재되어 있던 질병들이 입국 후 발병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열악한 생활환경 뿐 아니라 탈출 후부터 입국 전까지 제 3국에서 불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생존에 위협적인 체험을 하기 때문이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 등지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난민으로서의 대우를 인정받지 못하고, 강제송환의 두려움 속에서 숨어 지내며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위협을 받는다(윤여상, 2001). 그로 인해 국내 입국 초기 뿐 아니라 지역사회 정착 과정에서도 상당히 높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이하 PTSD) 유병율을 보인다(강성록, 2000; 박철욱, 2007; 서주연, 2006; 이숙영, 2005). 우울감도 심하여서 하나원 입소자의 29.2%가 임상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속했으며(한인영, 2001), 지역사회 정착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51.5%~54.7%가 우울 집단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엄태완, 2004;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가족 해체에 따른 불안정감과 죄책감도 심하며(김태현, 노치영, 2003;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2000), 신체화 경향성도 뚜렷하여 하나원 교육생의 30~40%가 의학적 근거가 없는 다양한 신체 증상(허리통증, 소화불량, 가슴이나 심장 두근거림 등)을 호소하였다(전우택, 2004).

이들은 힘든 과정을 거쳐 탈북하였지만, 남

한 사회에 정착하는 문제도 많은 어려움을 야기한다. 북한이탈주민이 적응 초기에 겪는 심리적 문제에는 신분 노출에 대한 불안감, 함께 오지 못한 가족에 대한 걱정과 외로움, 위축감과 좌절감, 자율성과 능동성의 결여, 정신적 충격의 후유증, 건강 문제로 인한 동기 저하와 우울, 부모-자녀간의 갈등, 부부간의 갈등,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이소래, 1997; 장혜경, 김영란, 2000; 조영아, 2002). 외로움, 남한 주민과의 괴리감, 열등감, 미래생활에 대한 불안, 잔류가족이나 친척에 대한 보복의 두려움 등의 심리·정서적 문제로 인해 정신적인 어려움도 겪는다(이기영, 1998; 이장호, 1997; 전우택, 1997). 또한 남북한 간의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화 충격이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도 심하며(이장호, 김용범, 김경웅, 1997; 채정민, 2003; 채정민, 이종한, 2004), 중혼이나 동거로 인한 갈등(조영아, 전우택, 2005), 자녀 양육에 따른 어려움도 크다(김미정, 정계숙, 2007; 박미석, 이종남, 1999; 홍은주, 2003).

이와 같이 북한이탈주민들은 북한에서의 삶과 제 3국 체류 생활의 어려움 뿐 아니라 남한 사회 입국 후 경제, 사회, 문화적 적응의 과정을 경험하면서 더욱 많은 스트레스를 겪게 된다. 그로 인해 정신질환 및 스트레스의 신체화 증상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고 만성질환에 시달릴 가능성도 높다. 그러나 이들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기 때문에 정확한 평가와 지속적인 치료를 받기 어렵고(조한범, 이우영, 이금순, 전효관, 2003), 생활 스트레스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알콜에 의존하는 경향이 많아서 지역사회 거주 북한이탈주민 중 남성의 55%, 여성의 27%가 의존 수준의 음주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

연회, 2006).

위와 같은 선행연구들에 기초하면, 북한이탈주민이 겪는 심리적 문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은 탈북 과정에서 겪는 외상적 경험과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문화적, 경제적, 직업적,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PTSD 증상 뿐 아니라 우울, 불안, 편집 경향, 가족 갈등, 약물 남용 등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PTSD나 우울 등과 같은 특정 영역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많아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제를 다각도로 살펴보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차원적인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정신건강을 포괄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지만, 다면적 인성검사(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이하 MMPI)를 이용한 연구(강숙정, 2008)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편집증, 강박증, 정신분열증, 조증 등의 문제와 함께 공격성, 사회적 불안과 회피, 소외감 등 사회적 관계에서의 부적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태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이들이 심리검사에 노출된 경험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사실이다. 남북한이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반세기가 넘는 분단과 언어 정책의 차이로 인해 남한의 언어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보인다(전수태, 2003; 최명주, 2001). 실제 임상 경험에 비추어보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은 부정문 형태의 검사 문항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보이며, 일부 단어들(예를 들면, 식

욕, 사교적)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한다. 또한 “옳다” 혹은 “아니다”와 같이 이분법적 형태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응답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는 리커트 척도(Likert scale)에 어려움을 보인다. 전문적인 문제들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은 기존의 자기보고식 검사지에 응답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로 인한 어려움과 피로를 호소한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태를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적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응답 유형도 단순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윤여상, 김현아 및 한선영(2007)은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적용되는 다양한 내용들로 구성된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전반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정도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문항들이 영역별로 체계화되어 있지 못해 어떤 영역의 문제가 현저한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주요 심리적인 문제들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것도 한계점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태를 측정하는 것은 다양한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격 특성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나 치료계획 수립을 위한 상세한 정보 파악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종합적이고 정밀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다수의 북한이탈주민 중 심리적 개입이 필요한 이들을 1차적으로 조기 선별하고자 할 때는 간단한 질문지 형태의 검사 도구가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특수한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임상가가 부족하고, 다양한 분야의 비전문가와 준전문가들이 북한이탈주민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실에서 상당히 필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12월 현재 남한에 들어와 살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가 1만 7천명을 넘어섰다(통일부, 2009).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초기 정착을 위해서는 이들의 심리적인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바탕으로 조기 개입함으로써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북한이탈주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심리상태를 측정할 수 있는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가 없어 이들의 심리적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태 측정을 위해 선별검사의 성격을 지닌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Brief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Refugees; BPSI-NKR)”를 개발하고자 하며, 목적과 활용성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주요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포괄할 수 있는 다차원적인 자기보고식 심리검사를 개발하는 것이다. 둘째, 북한이탈주민이 이해하기 쉽고 응답하기 쉬운 형태로 검사지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심리검사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고, 북한이탈주민이 흔히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 영역들을 여러 개의 하위 척도들로 구성하여 예비 문항을 작성한 다음 문항 분석을 통해 검사 문항을 선정하고자 한다. 또한 하위 척도들에 대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활용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고,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을 조기 선별하여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I: 예비 척도 구성 및 문항 선정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태 전반을 측정할 수 있는 간편화된 검사가 없어 MMPI나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ed; SCL-90-R) 등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척도들은 북한이탈주민들이 특징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상태와 맞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남북한의 언어적 표현에 차이가 있어 용어 이해에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나는 현재 힘들지 않다”와 같은 부정문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외래어도 어려워한다. 따라서 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고, 문장도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검사들의 실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을 감안해 전체 문항수를 100문항 내외, 작성 소요시간을 20분 내외로 하였고, 응답 방식은 3점 척도(아니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로 단순화하였다.

하위 척도는 선행 연구들을 참고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우울, 불안, 신체화, 대인 예민, 분노, 정신증을 기본 하위 척도로 하고, 가족 문제와 음주문제를 보충 척도로 구성하였다. 하위 척도별 예비 문항들은 기존 척도인 MMPI-2, 우울, 불안 척도 및 북한이탈주민들을 위해 제작된 척도 문항들을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방 법

도구

다면적 인성검사-2(MMPI-2)

다면적 인성검사-2(MMPI-2; 김종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경주, 2005)는 MMPI-2

미국 원판(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II; Butcher, Dahlstrom, Graham, Tellegen & Kaemmer, 1989)을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검사이다. 이 검사는 10개의 임상 척도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심리적 증상들을 측정하는 척도이다. 총 567문항으로, 각 문항에 ‘그렇다’ 또는 ‘아니다’로 답하게 되어 있으며, 9개의 타당도 척도와 10개의 임상 척도, 9개의 재구성 임상 척도, 5개의 성격병리 5요인 척도, 15개의 내용 척도, 15개의 보충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MMPI-2의 타당화 연구를 수행한 한경희, 임지영, 민병배, 이정흠, 문경주, 김중술(2006)은 한국판 MMPI-2가 신뢰롭고 타당한 검사임을 보고하였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진단 척도-인터뷰 버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진단 척도-인터뷰 버전(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 Scale-Interview; PSS-I)은 PTSD 증상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다(Foa, Riggs, Dancu, & Rothbaum, 1993). 이 척도는 재경험, 회피, 흥분 등 3개 영역의 DSM-IV 진단 기준을 기초로 반구조화된 면담용으로 개발되었으며, 오수성, 박중규, 신현균, 이영호(2007)에서 한국판이 사용되었다. 총 17 문항이고, 4점 척도로 이루어져 있으며, 0(증상이 없음), 1(일주일에 1회 정도), 2(일주일에 2~4회 정도), 3(일주일에 5회 이상)으로 채점된다. 평정자 간 일치도는 .96이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

Davidson, Book 및 Colket(1997)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Davidson Truma Scale; DTS)는 재경험, 회피/마비, 과각성의 3가지 하위 영역의 총 1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진단기준으

로는 설명되지 않는 추가 증상을 파악하기 위한 복합 PTSD 6문항이 있으며, 지난 한 주간에 발생한 PTSD의 빈도와 심각성에 대해 각각 5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되어있다. 빈도(0점: 전혀 없음, 4점: 매일)와 심각성(0점: 전혀 힘들지 않음, 4점: 매우 힘들) 점수가 높을수록 각 문항에 의해 측정되는 특성이 더 많이 반영되는 것으로 간주되며, 각 증상의 하위 요인 내에서 빈도와 증상의 강도의 합계로 측정한다. 각 증상마다 빈도와 강도를 평정하고, 이들 항목이 DSM-IV 진단 기준에 필요한 수만큼 충족이 될 때 PTSD로 진단한다.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Cronbach's α 는 전체 .95, 재경험 요인은 .91, 회피/마비 요인은 .90, 과각성 요인은 .92로 보고되었다(윤여상 등, 2007).

우울 척도

Beck의 우울 척도(Beck Depression Inventory; BDI)는 우울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Beck, Ward, Mendelson, Mock, 그리고 Erbaugh 등(1961)이 제작하고, 이영호와 송중용(1991)이 번안한 척도이다. BDI는 우울 증상의 수준을 측정하는 자기보고형 검사로서, 우울의 인지적, 정서적, 동기적, 생리적 증상 영역을 포함하는 21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척도의 질문지다.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 증상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불안 척도

Beck의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는 Beck, Epstein, Brown, 그리고 Steer 등(1988)이 개발하고, 김중술과 육성필(1997)이 번안한 척도이다. BAI는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자기보고형 검사로, 21문항으로 이루어진 4

점 척도의 질문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증상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한국형 국립서울정신병원 알콜중독 선별 검사

김경빈, 한광수, 이정국, 이민규, 김유광, 김철규(1991)가 개발한 한국형 국립서울정신병원 알콜중독 선별검사(Alcoholism screening test of National Seoul Mental Hospital; NAST)는 알콜 문제의 심각성 및 중독의 단계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총 12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렇다”와 “아니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4가지 항에 해당되면 알콜 중독이 의심되어 주의 요하고, 6가지 항에 해당되면 알콜 중독에 대한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본다.

절차

척도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심리검사와 심리치료를 실시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심리검사 도구 개발과 실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였다. 임상 경험과 문헌 고찰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주요한 심리적 문제 영역을 하위 척도로 구성하고, 하위 척도별로 예비 문항 전집을 구성하였다. 먼저, 해당 영역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던 기존 심리검사들의 문항을 검토하여 내용 타당도가 있는 문항들을 예비 문항 전집으로 구성하였다. 그 다음 임상심리학 박사 및 전문가 3인이 합의하여 각 하위 척도별로 20문항 내외, 총 103 문항을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언어에 숙달되어 있는 국문학자와 국내 정착한 북한이탈주민 전문가로부터 언어 표현과 이해에 대한 자문을 구하여 예비 문항의 언어 표현을 수정하였다.

결 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상 경험에 기초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이들이 흔히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 영역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증상, 피해의식을 포함한 대인 예민성, 분노감 등이 포함되었고, 가족문제와 약물 남용도 상당 부분 존재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정신증적 상태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서 매우 드물게 보고되는 문제지만, 치료적 개입을 위한 선별에서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문항 작성 시 주로 참고한 척도들과 선정된 문항 수는 다음과 같다. 외상 후 스트레스(PTS; Post-Traumatic Stress)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 진단 척도-인터뷰 버전과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를 참고하였으며, 문항 선정 후 수정 과정을 거쳐 총 1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불안 척도(Anxiety; ANX)는 BAI와 MMPI-2의 ANX, RC7 문항을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수정 과정을 통해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우울 척도(Depression; DEP)는 BDI와 MMPI-2의 DEP, LSE, RC2 척도의 문항들을 참고해 문항을 작성하였고, 수정 과정을 거쳐 총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신체화 척도(Somatization; SOM)는 MMPI-2의 HEA, RC1 문항을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수정 과정을 통해 총 1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인 예민 척도(Interpersonal Sensitivity; IS)는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대인관계에서의 민감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MMPI-2의 SOD, RC6, Ho 척도의 문항들을 참고하였으며, 문항 선정 후 수정 작업을 거쳐 총 12문항으로 구

성하였다. 분노 척도(Anger; ANG)는 분노 감정과 폭발적인 행동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MMPI-2의 ANG, RC4 척도를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수정 과정을 거쳐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정신증 척도(Psychosis; PSY)는 MMPI-2의 BIZ, RC8 척도를 참고하여 문항을 구성하였고, 수정 작업을 거쳐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가족문제 척도(Family Problems; FP)는 북한이탈주민이 지니고 있는 가족에 대한 태도나 감정들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서, MMPI-2의 FAM 문항을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수정 과정을 거쳐 총 9문항으로 작성하였다. 음주문제 척도(Alcohol Problems; AP)는 술이나 마약의 과도한 사용, 자제력 부족 및 이와 관련된 사회생활에서의 어려움이나 문제들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MMPI-2의 보충척도인 MacAndrew의 알코올 중독과 중독 인정 척도, 한국형 국립서울정신병원 알콜 중독 선별검사 등을 참고하여 문항을 작성하였으며, 수정 과정을 거쳐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II: 문항 분석을 통한 문항 선정

연구 II에서는 연구 I에서 작성한 예비 문항들을 하나원 입소자들에게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척도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예비 문항과 준거 척도를 동시에 실시하여 문항 분석을 통해 적절한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각 하위 척도별로 준거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다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문항 선정을 위한 연구대상은 하나원에서 교육 중인 남성 58명과 여성 240명으로, 총 298명이었다. 성비는 2008년 하나원 입소자의 성별 현황(통일부, 2008)에서 남성 비율이 21.5%였던 점에 기초해 이와 유사한 비율로 표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도구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

미국의 Derogatis(1977)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다차원 증상 목록 척도로서, 본 연구에서는 김광일, 김재환 및 원호택(1984)이 표준화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화, 강박증, 대인 민감성, 우울증, 불안, 적대감, 공포불안, 편집증, 정신증 등 9개의 하위 증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검사의 신뢰도는 .77~.89 사이이며, 전체의 신뢰도는 .98로 나타났다.

절차

각 하위 척도별로 준거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문항들을 선정한다는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먼저, 보충 척도를 제외한 기본 척도들의 예비 문항과 준거 척도인 SCL-90-R을 동시에 실시하여 상관분석을 통해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준거 척도와의 상관이 .30을 넘지 못하는 문

표 1. 문항 선정을 위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빈도	%	특성	구분	빈도	%
성	남	58	19.5	서비스직		51	17.1
	여	240	80.5		농사	50	16.8
연령대	20대	75	25.5	사무직, 회사	17	5.7	
	30대	120	40.3	자영업	13	4.4	
	40대	83	27.9	기술직, 전문직	22	7.4	
	50대 이상	17	5.7	가사	58	19.5	
학력	고졸 이하	6	2.0	직업	노동자	28	9.4
	고졸	208	69.8		무직	17	5.7
	고졸 이상	79	26.5		기타	19	6.4
	결측값	5	1.7		교사	2	0.7
결혼 상태	기혼	54	18.1	군인	5	1.7	
	미혼	57	19.1	목사	1	0.3	
	이혼	25	8.4	결측값	15	5.0	
	사별	17	5.7	종교	무교	98	32.9
	동거	128	43.0		불교	17	5.7
결측값	17	5.7	기독교		118	39.6	
가족동거 여부	함께 거주	65	21.8		천주교	44	14.8
	따로 거주	231	77.5		기타	1	0.3
	결측값	2	0.7	결측값	20	6.7	

항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였다. 그러나 상관이 .30에 다소 미치지 못하더라도 내용상 중요한 문항들은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일부 포함시켰다. 다음으로 내적 일관성을 높이는 문항을 선정하기 위해 각 하위 척도 문항들과 전체 점수 간 상관을 통해 내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즉,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지 못하는 문항들을 제거하였다. 단, 척도 특성에 따라 이 기준에 약간 미달하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포함된 문

항은 연구자들의 합의에 따라 최종 척도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

결 과

준거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을 기준으로 문항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예비 문항 중 총 19 문항이 부적합하여 삭제되고 최종적으로 84문항이 선정되었다. 긍정적인 내용의 문항들은

전반적으로 준거 척도와 상관이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 대부분 삭제되었다. 두 개의 보충 척도인 가족문제 척도와 음주문제 척도에 대해서는 문항-총점 간 상관을 통한 내적 일관성 신뢰도에 근거해 문항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최종 척도는 7개의 기본 척도와 2개의 보충 척도로 구성되었으며, 총 84문항으로 이루어졌다. 각 척도별로 최종 선정된 문항 내용은 부록에 제시하였으며, 최종 문항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Post Traumatic Stress; PTS)

예비 척도에 포함된 16문항에 대해 관련된 준거 척도인 SCL-90-R의 공포불안 척도와 상관을 구해본 결과, 세 문항이 낮은 상관을 보였고 그 중 한 문항은 문항-총점 간 상관도 낮았다. 따라서 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PTS 척도는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② 불안 척도(Anxiety; ANX)

예비 척도에 포함된 13문항에 대해 관련된 준거 척도인 SCL-90-R의 불안 척도와 상관을 구해본 결과, 모든 문항과 상관이 높고 문항-총점 간 상관도 양호하였다. 따라서 불안 최종 척도에서는 문항 제거 없이 총 13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③ 우울 척도(Depression; DEP)

예비 척도에 포함된 15문항에 대해 관련된 준거 척도인 SCL-90-R의 우울 척도와 상관을 구해본 결과, 네 문항이 낮은 상관을 보였고 세 문항은 문항-총점 간 상관도 낮았다. 이 중 두 문항은 동일 문항이었다. 따라서 다섯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우울 척도는 총 10문항으

로 구성하였다.

④ 신체화 척도(Somatization; SOM)

예비 척도에 포함된 11문항에 대해 관련된 준거 척도인 SCL-90-R의 신체화 척도와 상관을 구해본 결과, 한 문항이 낮은 상관을 보였고 문항-총점 간 상관도 낮았다. 따라서 이 한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신체화 척도는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⑤ 대인 예민 척도(Interpersonal Sensitivity; IS)

예비 척도에 포함된 12문항에 대해 관련된 준거 척도인 SCL-90-R의 대인 민감성 척도와 상관을 구해본 결과, 다섯 문항이 낮은 상관을 보였고 다섯 문항은 문항-총점 간 상관도 낮았다. 그 중 두 문항은 대인 민감성 척도와 상관이 .29로 .30에 근접하며 내용상 중요성에 따라 최종 문항에 포함시켰다. 또한 두 문항의 문항-총점 간 상관이 .30에 약간 못 미치지만 역시 내용상 중요성에 따라 최종 문항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세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대인 예민 척도는 총 9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⑥ 분노 척도(Anger; ANG)

예비 척도에 포함된 9문항에 대해 관련된 준거 척도인 SCL-90-R의 적대감 척도와 상관을 구해본 결과, 두 문항이 낮은 상관을 보였고 문항-총점 간 상관도 낮았다. 따라서 이 두 문항을 제거하여 최종 분노 척도는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⑦ 정신증 척도(Psychosis; PSY)

예비 척도에 포함된 5문항에 대해 관련된 준거 척도인 SCL-90-R의 정신증 척도와 상관을 구해본 결과, 두 문항이 다소 낮은 상관을

보였지만 준거 척도와와의 상관이 .27, .29로 .30에 근접하고, 문항-총점 간 상관은 모든 문항에서 양호하였다. 따라서 문항 제거 없이 최종 정신증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⑧ 가족문제 척도(Family Problems; FP)

예비 척도에 포함된 9문항에 대해 문항-총점 상관을 구한 결과, 두 문항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았다. 따라서 이 두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가족문제 척도는 총 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⑨ 음주문제 척도(Alcohol Problems; AP)

예비 척도에 포함된 문항은 11문항과 보충 문항 2문항(음주횟수와 평균 주량)으로 구성되었다. 11문항에 대해 문항-총점 상관을 구한 결과, 두 문항에서 문항-총점 간 상관이 낮았다. 또한 한 문항은 음주횟수 및 평균 주량과 상관이 매우 낮아 준거 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이 세 문항을 제거하고 최종 음주문제 척도는 8문항과 보충 문항 2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III: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 및 보충 척도의 타당도 분석

연구 III에서는 최종 선정된 문항들로 구성된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두 개의 보충 척도인 가족문제 척도와 음주문제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성별로 분석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최종 척도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보충 척도의 준거 타당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을 받고 있는 남성 127명, 여성 22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2에 제시하였다.

도구

가족응집력 척도

가족응집력 척도는 Olsen과 Porter 그리고 Lavee가 개발한 가족 적응력·결속력 평가도구(Family Adaptability Cohesion Evaluation Scale; FACES) 중에서 김윤희(1989)가 번안한 결속력에 관한 10문항 중 요인부하량이 높은 다섯 문항을 선정한 척도이다. 5점 척도이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84였다(최태산, 홍경자, 1997).

음주문제 척도

신행우(1998)가 제작한 척도로 알코올 사용에 따른 일상생활에서의 기능적 문제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이 척도는 직업 및 사회 기능상의 손상 6문항, 행동문제 10문항, 가족 및 대인관계 손상 7문항으로 총 20문항이다.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직업 및 사회문제 .88, 행동문제 .84, 가족 및 대인관계 문제 .79이다.

절차

최종 척도에 대해 성별에 따라 각 하위 척도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항목-총점 간 상관을 분석하였다. 가족문제 척도와 음주문제 척도에 대해서는 관련 척도와의 상관을 통

표 2.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남	녀	특성	구분	남	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연령대	20대	54(42.5)	58(25.8)	직업	서비스직	3(2.4)	7(3.1)
	30대	31(24.4)	97(43.1)		농사	1(1.8)	42(18.7)
	40대	31(24.4)	56(24.9)		사무직	22(17.3)	19(8.4)
	50대 이상	11(8.7)	7(3.1)		자영업	6(4.7)	7(3.1)
	결측값	0(0.0)	7(3.1)		기술직	25(19.7)	21(9.3)
학력	고졸 이하	5(3.9)	8(3.6)		가사	0(0.0)	47(20.9)
	고등학교	79(62.2)	158(70.2)		노동자	33(26.0)	28(12.4)
	고졸이상	43(33.9)	53(23.5)		무직	17(13.4)	13(5.8)
	결측값	0(0.0)	6(2.7)		기타	2(1.6)	7(3.1)
결혼 상태	기혼	48(37.8)	29(12.9)		교사	1(0.8)	6(2.7)
	미혼	55(43.3)	41(18.2)	군인	10(7.9)	1(0.4)	
	이혼	13(10.2)	35(15.6)	목사	0(0.0)	1(0.4)	
	사별	4(3.1)	13(5.8)	학생	6(4.7)	6(2.7)	
	동거	5(3.9)	100(44.4)	운동선수	1(0.8)	1(0.4)	
	별거	2(1.6)	0(0.0)	결측값	0(0.0)	19(8.4)	
	결측값	0(0.0)	7(3.1)	종교	없음	72(56.7)	72(23.6)
입국 상태	가족과 함께	35(27.6)	57(25.3)		불교	3(2.4)	33(14.7)
	혼자	92(72.4)	162(72.0)		기독교	42(33.1)	104(46.2)
	결측값	0(0.0)	6(2.7)		천주교	10(7.9)	20(8.9)
가족동거 여부	함께 거주	38(29.9)	54(24.0)		기타	0(0.0)	3(1.3)
	따로 거주	89(70.1)	164(72.9)		결측값	0(0.0)	12(5.3)
	결측값	0(0.0)	7(3.1)				

해 준거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즉, 가족문제 척도는 가족응집력 척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음주문제 척도는 실행우의 음주문제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하였다.

결 과

내적 일관성 신뢰도 및 문항-총점 간 상관

각 하위 척도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는 표 3에, 항목-총점 간 상관 분석 결과는 부록에

표 3. 하위 척도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 예민	분노	정신증	가족 문제	음주 문제
남성	.86	.89	.81	.77	.78	.82	.59	.72	.83
여성	.86	.88	.81	.83	.74	.79	.68	.71	.68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정신증 척도, 여성의 경우, 정신증 척도와 음주문제 척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척도들에서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70을 넘어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하위 척도별로 내적 일관성 신뢰도와 문항-총점 간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척도(13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남성과 여성 모두 .86이었고, 모든 문항과 전체 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불안 척도(13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남성 .89, 여성 .88이었으며, 남성의 경우 모든 문항과 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었고 여성의 경우 문항 33번의 항목-전체 상관이 .26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우울 척도(10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여성, 남성 모두 .81이었고, 남성의 경우 23번 문항에서 .24인 것을 제외하고는 남녀 모두 모든 문항에서 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신체화 척도(10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남성 .77, 여성 .83이었으며, 남녀 모두 문항 1번의 항목-전체 상관이 .21, .29로 낮고, 남성의 경우 70번 문항에서 .29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대인 예민 척도(9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남성 .78, 여성 .74였고, 남성의 경우 문항 5번과 72

번이 .30을 넘지 못하고 여성의 경우 문항 64번의 항목-전체 상관이 .18이었던 것을 제외하고 모든 문항에서 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분노 척도(7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남성 .82, 여성 .79였으며, 모든 문항에서 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다. 정신증 척도(5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남성 .59, 여성 .68이었으며, 남녀 모두 문항 75번의 항목-전체 상관이 .26이고 남성의 경우 문항 9번이 .29인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문항에서 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었다. 보충 척도인 가족문제 척도(7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남성 .72, 여성 .71이었으며, 남녀 모두 문항 10번, 11번 항목의 전체 상관이 .30을 넘지 못하고 여성의 경우 문항 77번도 낮게 나와 내적 일관성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문제 척도(8문항)의 내적 일관성 신뢰도 α 는 남성 .83, 여성 .68이었다. 남성의 경우 모든 문항에서 총점 간 상관이 .30을 넘어 내적 일관성이 양호하였지만, 여성의 경우 문항 30번과 69번에서 다소 낮게 나왔다.

보충 척도의 타당도 분석

두 개의 보충 척도(가족문제와 음주문제)에 대한 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기존의 관련 척도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남성의 경우 가

족문제 척도는 가족응집력 척도 점수와 $-.49$ 의 유의미한 역 상관을 보여 준거 타당도가 확인되었다($p < .001$). 음주문제 척도는 기존의 음주문제 척도와 $.68$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준거 타당도가 확인되었다($p < .001$).

여성의 경우 가족문제 척도는 가족응집력 척도 점수와 $-.56$ 의 유의미한 역 상관을 보여 준거 타당도가 확인되었다($p < .001$). 음주문제 척도는 기존의 음주문제 척도와 $.55$ 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준거 타당도가 확인되었다($p < .001$).

연구 IV: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

연구 IV에서는 본 검사의 시간적 안정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성별로 검토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연구 III에서 신뢰도 분석에 참여했던 대상자 중 남성 77명과 여성 13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여성의 경우 35명의 자료는 성명 표기 누락 등의 이유로 분석에서 제외되어 총 10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4에 제시하였다.

절차

각 하위 척도별로 검사-재검사 점수 간 상

관을 분석하였다. 검사-재검사 실시 간의 시간 간격은 2주였다.

결 과

각 하위 척도별 검사-재검사 상관분석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남녀 모두 불안, 우울, 신체화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0$ 을 넘어 검사의 시간적 안정성이 양호하였다. 여성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분노 척도의 경우 $.60$ 을 넘었으며, 대인 예민, 정신증, 가족문제 및 음주문제는 $.50$ 대로 시간적 안정성이 다소 부족하였다. 남성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대인 예민, 음주문제 등이 $.70$ 을 넘어 시간적 안정성이 양호하였지만, 분노, 가족문제, 정신증 척도에서는 다소 낮았다. 이런 결과는 본 검사가 안정된 특성보다는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검사-재검사 간 상관이 다소 낮게 나온 하위 척도들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증상을 갖고 있지 않아 낮은 점수대에 분포가 편포됨으로 인해서 상관이 낮게 나왔을 가능성도 있다.

논 의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다차원적인 자기보고식 심리상태 측정 도구인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심리검사 도구 개발 경험이 있는

표 4.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위한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특성	구분	남	녀	특성	구분	남	녀
		빈도(%)	빈도(%)			빈도(%)	빈도(%)
연령대	20대	37(48.1)	30(30.0)	직업	서비스직	3(3.9)	2(2.0)
	30대	17(22.1)	41(41.0)		농사	1(1.3)	16(16.0)
	40대	15(19.5)	24(24.0)		사무직	13(16.9)	8(8.0)
	50대 이상	8(10.4)	4(3.1)		자영업	4(5.2)	1(1.0)
	결측값	0(0.0)	1(1.0)		기술직	17(22.1)	7(7.0)
학력	고졸이하	4(5.2)	6(6.0)	가사	0(0.0)	26(26.0)	
	고등학교	53(68.6)	76(76.0)	노동자	19(24.7)	14(14.0)	
	고졸이상	20(26.0)	18(18.0)	무직	10(10.0)	6(6.0)	
결혼 상태	기혼	25(32.5)	12(12.0)	기타	0(0.0)	5(5.0)	
	미혼	37(48.1)	17(17.0)	교사	1(1.3)	1(1.0)	
	이혼	9(11.7)	11(11.0)	군인	4(5.2)	1(1.0)	
	사별	2(2.6)	4(4.0)	목사	0(0.0)	1(1.0)	
	동거	2(2.6)	54(54.0)	학생	4(5.2)	4(4.0)	
	별거	2(2.6)	1(1.0)	운동선수	1(1.3)	1(1.0)	
	결측값	0(0.0)	1(1.0)	결측값	0(0.0)	7(7.0)	
가족동거 여부	함께 거주	21(27.3)	23(23.0)	종교	없음	45(58.4)	20(16.4)
	따로 거주	56(72.7)	77(77.0)		불교	2(2.6)	21(21.0)
입국 상태	가족과 함께	20(26.0)	24(24.0)		기독교	27(35.1)	45(45.0)
	혼자	57(74.0)	76(76.0)		천주교	3(3.9)	13(13.0)
					기타	0(0.0)	1(1.0)

표 5. 하위 척도별 검사-재검사 점수 간 상관

	외상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 예민	분노	정신증	가족 문제	음주 문제
남성	.74***	.75***	.75***	.74***	.81***	.67***	.44***	.63***	.87***
여성	.68***	.72***	.71***	.76***	.55***	.66***	.57***	.51***	.59***

*** $p < .001$.

전문가 3인의 토론을 거친 합의와 경험적 접근방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들이 경험하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포괄할 수 있고, 응답이 용이한 도구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임상 장면에서 북한이탈주민이 흔히 나타내는 심리적 문제들과 문헌 고찰을 통해 확인된 내용을 중심으로 예비 척도 문항을 구성하였고, 이를 하나원 교육생에게 적용하여 준거 타당도와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높은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최종 척도에 대해 내적 일관성 신뢰도 분석과 보충 척도의 타당도 분석을 실시하였고, 검사-재검사 신뢰도 분석을 통해 검사의 시간적 안정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I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흔히 보이는 심리적 문제 영역을 외상 후 스트레스, 불안, 우울, 신체화, 대인 예민, 분노 등의 기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문제의 심각도를 고려하여 정신증을 기본 척도에 포함하였다. 또한 가족문제와 음주문제를 보충 척도로 구분하여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 II에서는 문항 분석 과정을 통해 적합한 문항들을 선정하였다. 즉, 9개 척도별 예비 문항과 준거 척도인 SCL-90-R 간의 상관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84문항을 선정하였다. 연구 III에서는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하위 척도별 내적 일관성 신뢰도가 남녀 모두 .71~.88로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신증 척도의 경우 남녀 모두에서 신뢰도가 다소 낮았으며, 여성의 경우 음주문제 척도의 신뢰도가 낮았다. 이런 결과는 정신증적 상태에서는 탈북과 제3국 체류, 국내 입국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 대부분의 피검자들이 낮은 점수에 응답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음주문제 척도의 경

우, 여성이 음주문제를 갖고 있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고, 하나원에서 알콜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현실 여건을 반영하는 결과로 생각되며, 그로 인한 점수의 편포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타당도 분석 결과, 보충 척도인 가족문제 척도는 가족응집력 척도 점수와 남녀 각각 -.56, -.49의 유의미한 역 상관을 보였고, 음주문제 척도는 기존의 음주문제 척도 점수와 남녀 각각 .55, .68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여 준거 타당도가 확인되었다. 연구 IV에서는 2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간 상관을 분석한 결과, 남녀 모두 불안, 우울, 신체화 척도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70을 넘어 검사의 시간적 안정성이 양호하였다. 여성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분노 척도의 경우 .60을 넘었으며, 대인 예민, 정신증, 가족문제 및 음주문제는 .50대로 시간적 안정성이 다소 부족하였다. 남성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대인 예민, 음주문제 등이 .70을 넘어 시간적 안정성이 양호하였지만, 분노, 가족문제, 정신증 척도에서는 다소 낮았다. 이런 결과는 본 검사가 안정된 특성보다는 현재 상태를 측정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라 다소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검사-재검사 간 상관이 다소 낮게 나온 하위 척도들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증상을 갖고 있지 않아 낮은 점수대에 분포가 편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보면, 본 검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도록 구성되었으며, 내적 일관성 신뢰도,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비교적 양호하고, 내용 타당도와 준거 타당도도 비교적 양호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하위 척도들의 경우 다소 낮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추가

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요 성과 및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하는 심리적 문제들을 다차원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일부 검사들(윤여상 등, 2007)이 개발되었지만, 특정 영역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아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제를 포괄적으로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게서 유병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외상 후 스트레스 뿐 아니라 불안과 우울, 신체화 증상, 대인 예민성 등을 측정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은 탈북, 제 3국 체류, 남한 사회 정착 과정에서 가족 해체와 재결합, 중혼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태현, 노치영, 2003; 문숙재 등, 2000; 조영아, 전우택, 2005),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일종의 자가치료적(self-medication) 성격의 알콜 남용도 많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연희, 2006). 본 연구는 심리적 증상 척도들 외에도 가족문제와 음주문제 척도를 보충 척도로 구성함으로써 전술한 문제들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점도 지니고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는 북한이탈주민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택 범위를 단순화함으로써 실시와 응답이 간편하다. 총 84문항을 실시하는데 약 10~15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를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용 간이심리상태검사의 위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본 검사 사용에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자기보고식 검

사여서 북한이탈주민이 주관적으로 보고하는 내용에 근거하여 심리상태를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 과장이나 증상 은폐 탐지에 취약할 수 있고, 성격 문제 등에 대한 심층적인 평가에는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검사는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제를 단시간에 선별하는 도구로 활용될 때 유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법적인 문제나 심리적 특성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평가를 위해서는 다른 심리검사 도구들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 하위 척도별로 문항을 선정할 때 기존의 척도와의 상관을 통해 준거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본 척도를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면서 다양한 척도들 및 준거 집단을 사용해 각 하위 척도들의 준거 타당도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즉, 본 검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문제를 효과적으로 선별해주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상 집단이나 남한 사람과의 비교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점수 해석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검사가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상태에 대한 특성 파악 및 상담 효과 연구 등 다양한 연구에 사용될 수 있어 향후 관련된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검사를 사용해 북한이탈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어려움의 특성이 연구된다면, 이들의 성별, 연령별, 혹은 증상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강성록 (2000). 탈북자의 외상 척도 개발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숙정 (2008). 가양동 새터민 MMPI 검사 결과와 새터민 심리상담적 접근방안.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06-307.
- 김경빈, 한광수, 이정국, 이민규, 김유광, 김철규 (1991). 한국형 알콜 중독 선별검사 제작을 위한 예비연구(Ⅲ). 신경정신의학, 30(3), 569-581.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검사 실시요강. 중앙적성출판부.
- 김미정, 정계숙 (2007). 유아기 자녀를 둔 새터민 부모의 양육 이야기. 아동학회지, 28(1), 71-88.
- 김연희 (2006). 북한이탈주민의 우울과 알코올 문제 예측요인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22(4), 149-180.
- 김윤희 (1989). 부부 관계 및 부모 자녀 의사소통 가족 기능과 청소년 자녀 비행과의 관계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중술, 육성필 (1997). 한국판 Beck Anxiety Inventory의 임상적 연구: 환자군과 비환자군의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1), 185-197.
- 김중술, 한경희, 임지영, 이정흠, 민병배, 문경주 (2005). 다면적 인성검사 II 매뉴얼. (주) 마음사랑.
- 김태현, 노치영 (2003). 북한이탈 여성들의 삶 이야기 2: 생존전략을 중심으로 한 중국 생활체험. 대한가정학회지, 41(12), 229-243.
- 문숙재, 김지희, 이명근 (2000). 북한 여성들의 탈북 동기와 생활 실태: 중국 연변지역의 탈북 여성들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8(5), 137-152.
- 박미석, 이종남 (1999). 탈북 가족의 남한 사회 적응시 겪는 어려움과 그에 따른 대처 방안. 통일논총, 17, 3-74.
- 박철옥 (2007). 북한이탈주민의 대인관계적 외상 경험, 옹서, 경험 회피와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서주연 (2006).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남한 사회 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행우 (1998). 성격과 음주동기가 음주문제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엄태완 (2004). 북한이탈주민의 무망감에 의한 우울증 완충 효과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오수성, 박중규, 신현균, 이영호 (2007). 조사의 신뢰성 제고와 치료 및 재활 측면의 화해방안 모색을 위한 심리적 피해 현황 조사 보고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
- 윤여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부적응. 도서출판 세명.
- 윤여상, 김현아, 한선영 (2007).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3), 693-718.
- 이기영 (1998). 탈북자의 정신건강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의 모색.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8, 161-176.
- 이소래 (1997). 사회적 지지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5(1), 149-161.

- 이숙영 (2005). 북한이탈주민의 외상 경험과 남한 내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북한, 탈북 과정, 남한 적응 과정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송중용 (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0(1), 98-113.
- 이장호 (1997). 북한출신주민(탈북자 포함) 심리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 성곡논총, 28(4), 739-789.
- 이장호, 김용범, 김경웅 (1997).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적 갈등 해소방안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 장혜경, 김영란 (2000). 북한이탈주민 가족의 가족안정성 및 사회적응과 여성의 역할. 한국여성개발원.
- 전수태 (2003). 남북한 언어 차이와 그 극복 방안. 말과 글, 96, 84-88.
- 전우택 (1997). 탈북자들의 주요 사회배경에 따른 적응과 자아정체성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 1(2), 109-167.
- 전우택 (2004).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신체 및 정신건강이 경제적 자생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통일부 연구용역보고서.
- 조영아 (2002).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자아방어기제 연구: 남한주민 및 재한 조선족과의 비교.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조영아, 전우택 (2005). 탈북 여성들의 남한 사회 적응 문제: 결혼 경험자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0(1), 17-35.
- 조영아, 전우택, 유정자, 엄진섭 (2005).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예측 요인: 3년 추적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2), 467-484.
- 조한범, 이우영, 이금순, 전효관 (2003). 북한이탈청소년 및 귀국청소년 문제행동 예방과 대책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채정민 (2003).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내 문화적 적응 기재와 적응행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채정민, 이종한 (2004).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남북한 문화의 이질성: 북한이탈주민의 심리적 적응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0(2), 79-101.
- 최명주 (2001). 남북한 언어 차이 극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태산, 홍경자 (1997). 청소년 문제행동에 관한 심리적 변인분석. 교육심리연구, 11(2), 291-322.
- 통일부 (2008).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내부 자료.
- 통일부 (2009).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내부 자료.
- 한경희, 임지영, 민병배, 이정흠, 문경주, 김중술 (2006). 한국판 MMPI-2 개발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5(2), 299-328.
- 한인영 (2001). 북한이탈주민의 우울 성향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11(6), 78-94.
- 홍은주 (2003). 북한이탈부모의 자녀양육 변화와 문제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Beck, A. T., Epstein, N., Brown, G., & Steer, R. A. (1988). An inventory for measuring clinical anxiety: Psychometric properti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6), 893-897.
- Beck, A. T., Ward, C. H., Mendelson, M., Mock, J., & Erbaugh, J. (1961). An inventory for measuring depression. *Archives of General*

- Psychiatry*, 4, 561-571.
- Butcher, T. N., Dahlstrom, W. G., Graham, J. R., Tellegen, A., & Kaemmer, B. (1989). *MMPI-2: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2: Manual for administration and scoring*.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Davidson, J. R. T., Book, S. W., & Colket, J. T. (1997). Assessment of a new self-rating scale for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Psychological Medicine*, 27, 153-160.
- Derogatis, L. R. (1977). *SCL-90-R (revised) manual I.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ltimore, John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Foa, E. B., Riggs, D. S., Dancu, C. V., & Rothbaum, B. O. (1993).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brief instrument for assessing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Journal of Traumatic Stress*, 6, 459-473.
- 원고접수일 : 2010. 4. 16.
수정원고접수일 : 2010. 6. 29.
게재결정일 : 2010. 7. 14.

Development of the Brief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Refugees (BPSI-NKR)

Hyun-Kyun Shi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Hee Kyung Kim

Ministry of Unification

Jeeyoung Lim

Hoseo University

The current study aimed to develop a multidimensional, self-report inventory of psychological symptoms for North Korean refugees: the Brief Psychological State Inventory for North Korean Refugees (BPSI-NKR).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we derived 103 preliminary items and 9 subscales: 7 basic scales comprising Post-Traumatic Stress, Anxiety, Depression, Somatization, Interpersonal Sensitivity, Anger, and Psychosis and 2 supplementary scales comprising Family problems and Alcohol problems. We administered the 103 preliminary items to 298 North Korean refugees educated in Hanawon and examined the items' correlations with the Symptom CheckList-90-Revision and the item-total correlations, resulting in a final version of the BPSI-NKR, comprising 84 items and 9 subscales. Then, we administered this final version of the BPSI-NKR to 127 male and 225 female North Korean refugees educated in Hanawon, to assess its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original participants, 77 males and 100 females participated in the retest study. Analyses showed that the BPSI-NKR had moderate to high test-retest and internal consistency reliabilities. Correlations between the BPSI-NKR's two supplementary scales and family and alcohol-related inventories supported the BPSI-NKR's criterion-related validities. Finally we discuss the BPSI-NKR's applications for clinicians working with North Korean refugees and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 words: North Korean Refugees, Psychological Inventory, BPSI-NKR, reliability, validity

부록. 각 척도의 문항내용 및 문항-총점 간 상관

척도명	문항번호 및 문항내용	문항-총점 상관	
		여성	남성
외상 후 스트레스	24.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이 반복해서 생각나고 기억된다.	.64	.64
	25. 무서운 꿈을 반복해서 꾸다.	.56	.56
	26. 신경질적이며, 쉽게 놀란다.	.63	.63
	27.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도 자주 깬다.	.61	.58
	28. 조금만 건드려도 짜증나거나 화가 난다.	.56	.59
	29. 일상생활에 흥미가 줄어들었다.	.46	.57
	38.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이 마치 다시 일어날 것 같이 느껴진다.	.62	.57
	39. 과거의 고통스러운 사건이 기억날 때 심한 마음의 고통을 느낀다.	.58	.49
	40. 감시당하는 듯한 느낌이 든다.	.42	.41
	60. 감정을 느끼는 정도가 많이 줄어들었다.(예,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없다.)	.33	.34
	61. 과거의 괴로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상황이나 장소를 피한다.	.41	.46
	62. 미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44	.44
	63. 과거의 괴로운 사건이 떠오를 때 정서적, 신체적 반응이 크게 온다.(예: 가슴떨림)	.61	.51
불안	18. 앞으로 닥칠지도 모르는 안 좋은 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60	.54
	19. 다른 사람에 비해 나는 걱정을 많이 한다.	.57	.65
	20. 상당한 긴장 속에서 지내고 있다.	.64	.63
	21. 모든 일이 불안하게 느껴진다.	.72	.72
	22. 작은 일에도 지나치게 걱정한다.	.61	.68
	33. 밤에 잠생각에 시달리지 않고 쉽게 잠이 든다.	.26	.40
	34. 어려움이 너무 커서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느껴진다.	.55	.58
	35. 한 가지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56	.57
	36.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59	.59
	37. 쉽게 당황하거나 놀란다.	.53	.59
	41.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는 불안해진다.	.51	.51
	42. 마음 편하게 쉴 수 없다.	.63	.67
	79. 마음이 조마조마 하다.	.57	.59
우울	12. 나는 우울하다.	.57	.58
	13. 요즘 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잃어버렸다.	.54	.61
	14. 내 앞날은 희망이 없어 보인다.	.41	.38
	23.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느낄 때가 있다.	.56	.52
	43. 나는 쉽게 운다.	.41	.24
	44. 고민이 생기면 계속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45	.43
	45. 죽어 버렸으면 하고 바랄 때가 있다.	.47	.50
	46. 나의 삶은 텅 빈 것 같고 무의미하다.	.57	.71
신체화	47. 나는 장점(우점)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55	.59
	80. 지금의 나 자신이 만족스럽지 않다.	.35	.45
	1. 입맛이 좋다.	.21	.28
	15. 머리가 온통 쭈시는 것 같다.	.65	.51
	16. 온몸에 기운이 없다.	.59	.52
	17. 갑자기 속이 메스껍거나 토하고 싶은 때가 있다.	.59	.33
	48. 심장이나 가슴이 아파 고생한다.	.54	.40

(계속)

척도명	문항번호 및 문항내용	문항-총점 상관	
		여성	남성
신체화	49. 목에 무언가 걸린 것 같이 느껴진다.	.46	.40
	50. 어지럼증을 느낀다.	.63	.57
	56. 머리나 코가 꼭 막혀 있는 것 같다.	.55	.56
	70. 소화불량 같은 위장과 관련된 증상을 경험한다.	.47	.29
	71.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온몸이 화끈거릴 때가 있다.	.52	.55
대인 예민	2. 남이 내게 말을 걸어오기 전에는 내가 먼저 말을 하지 않는다.	.44	.52
	3. 사람이 많은 곳에는 잘 가지 않으려고 한다.	.56	.69
	4. 주위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피곤하다.	.57	.56
	5. 아무도 믿지 않는 것이 좋다.	.39	.29
	57.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기가 어렵다.	.41	.52
	58. 사람들이 이미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끼어들기 어렵다.	.51	.53
	59. 여유 시간을 혼자서 보낸다.	.42	.50
	64.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관해 뒤에서 수군대는 것 같다.	.18	.31
분노	72.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별로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는다.	.31	.26
	6. 욕설을 퍼붓고 싶다.	.54	.46
	7. 다른 사람과 말다툼을 한다.	.34	.41
	65. 너무 화가 나서 감정이 폭발할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	.61	.62
	66. 누군가를 때려주고 싶은 때가 있다.	.66	.68
	67. 가끔 너무 화가 나서 남을 때린다.	.39	.65
	73. 무엇인가를 부셔 버리고 싶다.	.56	.61
정신증	74.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순다.(미순다)	.54	.56
	8. 내 생각들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 같다.	.55	.44
	9. 누군가가 내 마음을 조종하는 것 같다.	.55	.29
	51.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남들이 다 알 것 같다.	.41	.47
	52. 누군가가 나를 해치려는 것 같다.	.43	.35
가족 문제	75. 실제로는 없는 목소리를 들을 때가 있다.	.26	.26
	10. 가족을 떠나고 싶을 때가 있다.	.19	.19
	11. 가족 중에 나를 몹시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29	.28
	53. 우리 가정은 사랑이 많은 편이다.	.58	.63
	54. 우리 가족은 서로 애정 표시를 한다.	.66	.60
	55. 내가 힘들 때 가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56	.54
	76. 우리 가족은 행복하다.	.60	.42
음주 문제	77. 나는 집안 식구들과 말다툼을 한다.	.21	.34
	30. 술이나 마약으로 인해 정신이 흐릿해질 때가 있다.	.23	.38
	31. 혼자 술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45	.39
	32. 술을 마시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면 거의 참을 수 없다.	.50	.60
	68. 힘든 하루를 마치면 보통 술을 좀 마셔야 한다.	.68	.70
	69. 술 때문에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다.	-.04	.49
	78. 나는 술을 너무 많이 마신다.	.43	.61
	81. 고민이 생기면 술로 해결하려 한다.	.41	.75
82. 최근 들어 술 마셨을 때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45	.52	